

시장자본주의의 대안 불교 안에 다 있다

우리는 선우 법석 '공정과 중도의 미래사회'

윤성식 교수 (고려대)

불교에서 돈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가 자본주의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과는 반대로 무소유로 대표되는 불교는 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는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아함경>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으며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자본주의를 통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정의내리고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4월 6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우리는선우 주최 윤성식 교수의 '공정과 중도의 미래사회-불교자본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가 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먼저 제가 어떻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부터 얘기드리겠습니다. 지독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기독교와는 잘 안맞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출근하는 길에 보리수선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그곳이 남방불교 위빠사나 선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이후 교리에 관심을 갖고 조계사불교대학 야간 과정 2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불교가 무소유만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아함경>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부처님에게서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 당시 열렬한 신자들은 상공업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 돈에 대해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막스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성공에 기독교가 기여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천민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기독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토인비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불교가 서양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21세기의 많은 문제를 불교가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워싱턴, 맨하탄 지성인들 모임의 대화 주제로 불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불교자본주의를 연기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이렇게 연기적 세계관을 갖는다면 아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

국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손실을 매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가에 도움 받고 이익은 기업 혼자 가져가려는 거죠. 기업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수출도 잘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환을 정책을 쓸 것인지 저환율을 쓸 것인지 국가는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많은 요인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기업 혼자만의 것은 없습니다. 손실도 자기 잘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내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불교적기업이란 뭐가요? 스티브 잡스는 대표적인 불교적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한 적 없다. 내 가족이 사용할 제품이라 생각하고 만들었다' 라고 말했죠. 그의 삶 자체가 무척 겸소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티브잡스는 젠스타일의 열렬한 신봉자였죠. 아이폰은 굳이 더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린스틱으로 유리창에 '고마워 스티브' 라고 썼습니다. 자기가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될까요? 스티브잡스가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무소유를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무소유의 개념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번뇌를 주니 단순소박하게 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소유. 또 다른 하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무소유가 됩니다.

결국 불교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그냥 불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너무 신나하지 말라는 것이죠. 줄여들면 낙심하지 말고 줄여들고 있구나라고 알라는 거죠. 옷 쌓아두고 재물 쌓아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택을 권장하면 좋은 것이고, 악법을 권장하면 나쁜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성식 교수는 ... 고려대 행정학과와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리노이대 회계학석사, 동국대 불교학석사, 버클리대 경영학박사, 동국대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대 경영대학원 교수 정부혁신지원본부권위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불교자본주의>가 있다.

<아함경>에 돈 관련 법문 많아

부처님은 위대한 경영학자

형편 따라 소비하는 것이 '중도 경제'

불교경제공동체로 대안의 삶 찾아가

저는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라고 마구 쓰면 불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길도에 가서 재미있는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 전복 80%가 완도·보길도 쪽에서 납니다. 전복양식이 매우 거친 노동이라 노약자는 섬에서 농사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복 양식자들에 비해 소득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전복양식자들은 돈을 거두어 노약자들에게 1년에 80만원 씩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이 돈이 큰돈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시골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함부로 해서 안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4분법 돈을 벌면 4군데 나눠 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계비, 생산비(투자비), 저축, 그리고 나머지는 빌려주어 이자를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돈은 누구한테 쓸까요? 우선 자기한테 쓰고 나머지는 친척 친구 그 다음에 승가에 보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시를 많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많이 내라고 해도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가 생기기전에 불교는 이미 매우 바람직한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자본주의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하고 자비로운 정법국가를 부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우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익을 탐하는 것 기교를 부리는 것 등을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매우 공정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비로운 시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불교는 서로 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의존이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하는 것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수하지 못한 회사도 효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해충벌레도 다 생태계에서 역할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좀더 길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각각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불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도 불교경제공동체 단서가 있습니다. 외도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음식과 약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병자와 어린이는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는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적 정신을 지키는 것이며 어차피 불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모범이 될 때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이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 소비자조합 금융활동 등은 불교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는 책들을 읽어보면 연기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불교 경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도 불교자본주의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절제, 슬로우라이프를 넘어 돈에 대한 문제도 불교로부터 찾고 불교에 대해 고마워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하는 것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수하지 못한 회사도 효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해충벌레도 다 생태계에서 역할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좀더 길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각각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불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도 불교경제공동체 단서가 있습니다. 외도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음식과 약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병자와 어린이는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는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적 정신을 지키는 것이며 어차피 불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모범이 될 때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이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 소비자조합 금융활동 등은 불교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는 책들을 읽어보면 연기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불교 경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도 불교자본주의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절제, 슬로우라이프를 넘어 돈에 대한 문제도 불교로부터 찾고 불교에 대해 고마워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선우는 4월 6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고려대 윤성식 교수를 초대 '공정과 중도의 미래사회' 강의를 펼쳤다.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 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 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티이 아닙니다!

암, 치매, 각종 통증! 척추교정으로 대부분의 질병 다스릴 수 있다.

30년 통증해결사 (MBN 천기누설 18회 '척추편' 방영)

진골척추 교정연구소 임상만 소장은 현대인들의 허리 관련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 화제다. 진골 척추교정요법은 경추, 흉추, 요추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틀림에서 비롯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오는 근관절질환과 내장질환, 피부질환, 치매의 병변들은 척추 교정법만으로 해결되며, 통증이 개선되고 몸이 편안해 지는 교정요법이다. 진골척추교정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뼈를 만지고 굳혀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근육이 발달한 젊은 사람일수록 치료기간이 짧고 노약자나 여성들의 경우 근육이 약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치료기간이 짧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척추교정분야에서 30년의 경험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5분 정도의 척추교정요법으로 아주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라도 통증이 해결되며 치료 성공률도 99%의 성공률로 언론매체에 서도 알려진바 있다. 임 소장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진골척추 교정법을 창안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두통, 목의통증, 어깨통증, 엉덩이통

증,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의 통증등 100여가지가 넘는다. 이 밖에 위장장애, 고혈압, 간질 환, 요실금, 신경질환에도 척추교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 소장의 탁월한 능력은 고질적인 아토피, 습관성 유산 불임등을 치유시켜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추천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희대 한의대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그 기술의 뛰어난은 대내외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와 함께 암 통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암치료의 부작용감소로 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TV 방송에 출연하여 척추통증에 관한한 유명 인사였던 임 소장은 척추의 형태만 보고도 통증이나 병의 유무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향후 진골척추교정법의 뛰어난 부분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13년 3월 30일 토요일자 6면
2013 POWER & TOP LEADER 기사중에서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 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곡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